

농촌진흥청은 5대 역점과제 이외에 지방주도 성장 과제와 국가정상화 과제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지원 대상을 기존 26개 작목(대표·집중육성)에서 지방정부 자체 육성 작목까지 포함하여 총 46개 작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앙-지방 간 협업 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정상화 과제로는 전체 농작업 사망사고 중 비중이 큰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농기계사고 감지 시스템과 119 상황실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전장치 부착 점검과 사고원인 분석을 체계화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인공지능(AI)과 농림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김은숙 (063-238-0410)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광수 (063-238-0411)